

2015 2.01 연중 제 4 주일

제 1 독서 : 신 명기 18,15-20 <나는 예언자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제 2 독서 : 코린토 1 7,32-35 <처녀는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복 음 : 마르코 1,21 ~-28 <예수님께서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스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제 1 독서의 신명기 말씀, 이것은 거의 모세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 보면서, 자신은 들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예언자를 보내 주실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 주실 것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통상 **예언자**를 이야기 할 때에, **예언**이라 하면 일상 생활에서 보통 이야기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지요? 즉 **예언자**란 앞날을 내다보고 미래에 있을 것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에 있는 예언자는 바로 그 점장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예언자 라고 합니다.** 즉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도 예언자 이십니다.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확실히 전할 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의 예언직에 동참하는 예언자 이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는 말이, 백성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리에서 보면 보편적인 예언직과, 하느님께서 특별히 지목해 주신 예언직 즉 사제 성소를 받고 활동하는 사제들의 예언직이 있습니다. 즉 지금 이 강론상황은 신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제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1 독서의 신명기를 읽다보면, 우리 사제들이 강론대에서 입을 열때에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어야 하는 지**를 경고하는 말이 뒤에서 나옵니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께 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이 강론대에서 말씀을 전달 할때에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를 하여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 할때에 얼마나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전달 하여야 하는지를 또 한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이름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있습니다. 또 우리 현재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하여 비판을 하기 보다는 바로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느님께 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역할은 무엇이나 하면? 나 혼자만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자녀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세속 사람들처럼 잘못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많이 잊어 버리고 삽니다. 너무 세속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이웃이 잘못을하는 그 순간에 우리 혀가 칼부림을 하고 맙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2 독서는 코린토공동체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성서공부를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가르침을 합니다. 그대에 코린토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하면? **결혼생활이 죄** 라는 의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럴때에 사도 바오로께서 코린토 1 서 7장에서, 혼자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며 또한 결혼생활도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것과, 그리고 혼자 불림을 받은 것은 선택된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서로 결혼을 해서 서로 도와주라고 이야기 합니다. 즉 결혼 성소도 하느님으로 불려진 중요한 자리 입니다. 그 자리가 서로 충실하지 못할때에는 바로 큰 죄악으로 빠질수 있다는 것을 바오로사도께서 이야기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악령이 든자가 회당에 들어 옵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느님이 계신 자리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자리에도 이루어집니다. 마귀는 하느님께 완전히 일치 할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 즉 죽어서 연옥을 통해 천당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지지난주에 사제교육에 들어 갔을 때에 신부님이 강론한 것이, **“ 마귀들이 가장 공격을 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바로 교황입니다. 그 다음은 사제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형제 자매님들 열심히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신부님 말씀에 의하면 신부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정성을 드려서 미사를 드릴때에 식탁을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 오느냐 하면 바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 되었을 때에 그때, 주님의 식탁을 다 뒤엎고 싶은 욕망과 충동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 마귀가, 그 정성스런 미사를 드리는 그 사제를 유혹하여 가장 거룩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 대한 모욕을 신자들에게 보여 주려는 그런 유혹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다고 합니다. 미리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들리라고 짐작도 하지 않은 때에, 어느 순간에 그런 충동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열심히 기도 하시는 데 잡념이 든다면, 그대에 더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바로 그때가 형제 자매님들이 진짜 내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고 있다고 확실히 말하기위해서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진정으로 하느님께 내 마음을 드리려 하고 있구나!” 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매일미사책에 있는 묵상이야기를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휴 ~ 또 저런 소리를 해!” 그러실텐데 오늘 묵상에 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우리 본당에도 악령 들린 자들이 버젓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

심령으로 살펴보자.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영혼과 정신이 헛된 이념의 잡귀에 사로잡힌 줄도 모르고 신자 행세를 하고 성체를 모시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사제의 강론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불편한 자, '강론대로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하는 생각을 가진 자가 여기 앉아 있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몸속에 악령이 들어와 혼란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없지만 시계를 자꾸만 들여다 봅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품을 합니다. 보란듯이 아주 노골적으로! 묵상에 실린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론의 말씀을 들을때에 "아니? 신부님이 우리 실정을 모르시는구나,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또 신부님도 하지 못할 말, 행동을 왜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어디서 또 무슨이야기를 들으셨을까? 등등 이런것들이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생각들과 유혹들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못들어 오도록 하게 하려는 마귀들의 술책들 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 화답송의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시지요.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우리가 강론의 말씀을 듣지만 마귀의 유혹. "신부님이니까 저런 말씀을 하셔,우리 세상 물정을 모르셔,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바로 마귀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귀가 무디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야! 하느님 말씀보다 더 옳은 것이야! 나는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전부터 형제 자매님들로부터 "신부님 강론이 좋았습니다. 강론이 요즘 좋아지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나? 의아했습니다. 늘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형제님의 삶에 사랑을 느끼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그 전에는 왜 저런 말을 안 하셨을까? 누구를 탓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강론이 딱딱 하고 거추장스러워 귀에 찼었는데, 요즘은 쏙쏙 들어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유혹을 떨치고 내 스스로를 하느님께, 하느님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 마귀의 유혹을 떨쳐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쏙쏙 들으실수 있도록!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께 기쁜 마음과 평화를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겨 나가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예언자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18,15-20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15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16 그것은 너희가 호렙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17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18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 줄 것이다. 19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20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95(94),1-2.6-7 ㄱㄴㄷ.7 ㄹ-9(◎ 7 ㄹ과 8 ㄴ)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처녀는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7,32-35

형제 여러분, 32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33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34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35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태 4,16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알렐루야.

<예수님께서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1 ~ 28

카파르나움에서, 21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22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23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24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25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26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27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이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28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래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